1. 여순사건의 배경

1) 여수 14연대의 창설과 구성

1945년 해방으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군철수를 대비한 한국군 창설이 서둘러 시작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는 미군사고문관이 지휘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각 연대가 창설되었다. 미군정청은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분출하였던 수십 개의 사설군사단체와 좌익군사조직들에게 군정법령 28호인 사설군사단체 해산령을 내렸다.[1] 이에 따라 1946년 1월 12일 국군준비대 등의 사설군사단체를 해산하고 국방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는 군정법령 제42호에 따라 태릉에 있는 일제 때의 육군지원병훈련소 자리에 총사령부를 두고 각 지방에 향토연대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국군준비대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일반 병사들은 국군준비대가 해체되자 상당수 국방경비대에 가입하였다.

국방경비대는 당초 미군정청이 경찰의 예비병력임을 표방하면서 창설하였기 때문에 경찰예비대 또는 향토경비대라고 불렸다. 이러한, 경찰의 하부조직 같기도 하고 군대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성격과 군대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 때문에 충원에 어려움이 많아 1개 연대를 편성하는 데 몇 개월씩이나 걸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비대의 충원은 거의 가두모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당시에는 정치적 상황이 좌우의 구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지원자의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을 따질 만한 여유가 없었으므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좌익활동가, 일반 우범자, 실업자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자들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경비대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실업자들은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수단으로 국방경비대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국방경비대원들에게 애국심이라든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광주에서는, 1946년 2월 15일 국방경비대 제4연대가 국군준비대의 임시병영이었던 광산군 극락면 쌍촌리의 일본군 해군 예과련(豫科練)의 병사에 창설된 A중대에서 모병을 시작하여,[2] 1946년 12월 말까지 3개 대대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초대 창설지휘관은 김홍준 부위(만군중위, 경북 상주), 김영환 참위(학병출신 일군소위), 조암 참위(학병출신 함북 경성), 최홍희 참위(함북 길주), 김현수 참위 등이었다. 미군정청의 루빈 대위가 고문, 마그넬 중위가 경리책임자로 일했다. A중대에 입대한 대원 가운데 김점곤(학병출신, 경비사관 제1기), 임충식(만군준위, 경비사관 제1기), 전부일, 김재명, 신동금, 김종관, 김련, 한진영(경비사관 제2기) 등이 있었고 그외에도 징병으로 일본군에 갔다 온 귀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4월경에는 B중대가 편성되어 최홍희 참위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5월에는 C중대가 창설되어 오규범 참위(군사영어학교, 만군출신)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8월경에는 D중대가 창설되어 백인엽 참위가 임명되었다.[3]

8월경의 4연대 편제는 A중대장 김동빈, B중대장 이영규, C중대장 오규범, D중대장 백인엽 참위였다. 이로써 4연대는 우선 1개 대대의 지휘체계로 출발하였고, 당시 4연대 병사는 창설 초기에는 구일본군 병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구병사 옆에 6개월간의 공사를 진행한 끝에 새로운 병사를 지어서 사용하였다. 정일권 정위는 6월 말경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실제 발령날짜는 5월 25일이었으나 부임할

---

1)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62~63쪽.
2) 김석학 외, 『광복 30년』2, 전남일보사, 1975, 17쪽.
3) 군사편찬과, 『창군전사』, 육군본부, 1980, 344쪽.

당시의 사소한 사건으로 적십자병원에 3주 정도 입원하였다가 제4연대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6월 말경이 된 것이다.

당시 4연대에는 이질적인 하사관들이 섞여 있었고, 또 일제 때의 경력을 앞세우는 고참 하사관들이 많이 있어서 장교들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극상과 같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었다. 또한 좌익계 병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무반의 안팎에는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전단들이 널려 있기가 다반사였다. 이들은 동조자를 포섭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하는 행위들을 많이 보였지만 당시의 사정으로는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 상층부의 책임장교들은 관심도 두지 않은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이 당시에는 좌익활동이 공공연히 진행되기도 하고, 설립될 국가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4연대의 창설요원들은 각 경찰서와 군청의 협조를 받아 모병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교정 등에 청년들을 모이게 한 다음 입대연설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는데, 진도·완도까지 순회하여 모병작업을 벌였지만 목표는 달성할 수 없었고 80% 정도만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이는 경찰의 예비대라는 인식이 모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270여 명을 선발했는데 해방 전의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장교 또는 하사관 출신과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를 우대했다. 선발과정은 신체검사와 구두시험이 전부였고, 그 중 신체검사는 도립병원(현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최상채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훈련은 초기에는 일본군식으로 진행되다가 얼마 후에는 미군식으로 개편되어 진행되었는데 훈련이 엄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상당수의 훈련병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100여 명이 줄어들게 되었다.[4)]

정일권 소령이 1947년 1월에 경비사관학교의 교장으로 전출되자 행정관인 조암 대위가 대대장이 되었다. 이어서 1946년 12월 14일 경비사관 2기로 임관한 이종국·조운학·오익경·정인규·임익순·이관식·최석락·김희준·정지웅·박율선·김윤원·계창율·노영목 등이 충원됨으로써 제2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오일균 대위는 제2대대장으로 1947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재직하면서 경비사관학교 시절에 의기투합했던 3기생 홍순석·김지회 소위와 가깝게 지냈다. 제4연대가 3개 대대의 완전 편성을 마친 것은 1948년 1월 10일이었다. 4연대는 1948년 5월 1일에 창설된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5월 4일 여수에 제14연대가 창설되자 제1대대장 이영순 소령이 연대장으로 보임되면서 안영길 대위 이하 1개 대대병력이 제14연대로 전출되었다.

1947년 5월 21일 제4대 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한림 소령은 1948년 8월까지 재직하였고 그뒤를 이어 이성가 중령이 연대장에 부임하였다. 제4연대는 여순사건 이후 11월 20일 제20연대로

4) 김석학 외, 앞의 책, 121~127쪽.

개편되었다.[5]

미군정청이 광주에 4연대 그리고 여수에 14연대를 창설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고 한국을 반공국가로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14연대를 창설할 때도 처음에는 4연대에서 차출된 기간요원 중 하사관 출신 50여 명이 근간이 되었다. 여순사건의 주동이 되는 지창수도 그 중의 한 명이었고, 그 역시 광주의 4연대 모병 때 입대한 것이었다. 14연대를 창설할 때 광주의 4연대 대원 중에서 평소에 까다로운 행동을 하거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구성원들이 대부분 14연대의 창설요원이 되었다. 우선 14연대의 신설 대대장으로 보내진 안영길 대위부터가 후에 숙군의 대상이 되는 좌경혐의자였고, 하사관들 중에도 좌경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14연대는 광주의 4연대와 다르게 처음에는 제4여단에 배속되었으나 6월 1일자로 다시 5여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었다.[6]

14연대의 창설요원으로 뽑힌 800여 명의 병사들은 차출 케이스로 뽑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상적으로도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다. 14연대의 병영은 여수읍에서 4K ㎞ 쯤 떨어진 여수반도 남단에 위치한 신월리에 있는 옛 일본군 항공기지(지금의 한국화약 자리)에 자리하였다.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농민들의 마을을 강제로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곳이 미군의 재점령으로 14연대의 부대 소재지가 된 것이다. 광주에서 열차로 800여 명의 기간요원이 도착하자 신병모집이 시작되었다. 약 2,000여 명의 신병을 모집하여 3개 대대를 편성할 목적이었다. 제헌의원선거가 실시된 직후였기 때문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반대운동에 가담하였던 청년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14연대의 모병에 응해옴으로써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던 군대 편성이 의외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초대 연대장 이영순 소령은 한 달 남짓 근무하다가 6월 18일자로 김익렬 소령으로 바뀌었으며, 김익렬 소령도 얼마 후 경질되어 7월 15일 오동기 소령이 부임하였다. 오동기 소령은 얼마 후 혁명의용군사건으로 서울로 소환되어 구속되는 운명이 되는데, 실제로 그는 광복군 출신으로 군인정신이 투철한 장교였다. 그는 평소에 군장교의 부패타락을 개탄하면서 군대의 개혁을 외쳤다. 여수의 14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당시 송호성 육군 총사령관이 독점하고 있던 군대 부식의 납품을 여수시 상인들의 공개입찰로 바꿔서 사병 부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장교들에 편중되어 있던 부식비 배정을 모든 장병들이 균등하게 혜택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상인들과 장교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혁명의용군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소환되는 운명이 된 것이다. 오동기 소령은 9월 28일 송호성 장군의 소환을 받고 상경했다가 10월 1일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결국 오동기 소령은 이렇게 구속되어 10년형을 언도받게 되고, 대신 나이 많은 일본군 출신 박승훈 중령(일본육사 제26기)이 10월 7일자로 14연대장에 부임해왔다.

이상과 같이 14연대는 출발부터 좌익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그들간의 연대의식은 대단히 강했다.

2) 경비대와 경찰의 갈등

국방경비대는 경찰예비대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경찰도 군대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것이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자신들의 예하기구로 보고 멸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경찰들은 일정교육을 받은 당당한 치안관리인데 반하여 경비대는 실업자와 우범자가 모인 잡동사니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5) 군사편찬과, 앞의 책, 346쪽.
6) 군사편찬과, 위의 책, 374쪽.

때문이었다. 국방경비대 병사들은 상당수가 한글도 깨치지 못한 문맹이었고 농촌의 머슴이나 관공서의 사환 등 경찰로서는 하찮게 볼 수 있는 기층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국방경비대의 복장이 경찰의 복장과 비슷했고 장비도 경찰장비가 우수했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경찰이 국방경비대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음에 반해 국방경비대원들은 경찰에 대해 역시 다른 이유로 멸시하고 있었다. 국방경비대원들은 대부분의 경찰들이 일제 때 친일경찰 출신들이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군은 경찰의 우위에 있다'는 군국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방경비대에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범법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과 국방경비대 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갈등은 사소한 문제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암·구례·순천 등지에서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무력충돌을 벌였다가 결국 군사고문단과 상급기관의 중재로 해결된 사건이 있었다.
영암의 군경충돌은 1947년 6월 1일 발생했다. 휴가 나온 국방경비대의 하사관 한 명과 신북지서의 지서원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다. 그것은 지서경찰들이 국방경비대원들이 쓰고 있던 모표가 일본의 사꾸라와 비슷하다는 야유를 보내자 하사와 경찰들 간에는 싸움이 벌어졌고, 영암경찰에서 출동한 경찰들은 국방경비대의 하사를 입건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광주의 4연대 경비대원 중 9명이 구속된 하사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영암으로 출동하여 경찰간부들에게 하사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경찰청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광주로 귀대하던 경비대원들이 신북지서 앞에서 2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고, 인솔자인 2명의 장교가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황으로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4연대의 병사들은 6월 2일 저녁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8대의 차량에 270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영암경찰서로 출동하였다. 그들의 당초 목표는 영암경찰서를 포위하여 위협함으로써 구속된 하사관을 석방시키고, 구타를 주동한 경찰들을 연행하여 혼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암경찰서를 포위하여 위협하는 도중 서로 총격전이 벌어져 6월 3일 새벽 3시부터 7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반이나 총격전이 계속되었다. 긴급히 출동한 4연대장과 영암군수, 영암경찰서장의 개입으로 중지되었지만 경비대의 하사 2명과 경찰 1명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7)]
구례사건은 1948년 9월 24일 구례읍의 한 이발관에서 술에 만취한 구례경찰서 수사계 김모 경사가 이발관 주인의 인사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구타하자, 휴가를 나와 이발관에서 휴식 중이던 14연대 소속 장병이 이를 중재하였다. 이에 화가 난 김 경사는 전 서원을 비상소집하여 구례읍에서 휴가 중이던 14연대 사병 9명을 모두 구금하여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14연대에서는 즉시 헌병들과 일부 병력을 구례로 출동시켜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구속 중에 있던 사병들을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다.[8)]
함평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7월 12일 국방경비대원 18명이 함평군 학교면 학교지서를 무장한 채 습격하여, 전화선을 절단하는 동시에 지서원을 철봉과 장총으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난타하여 경찰서원 2명이 전치 2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9)]
이상과 같은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갈등양상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었다. 부산역사건, 장택상 수도청장과 최홍희 소령의 충돌, 대전의 사건, 경북 영일군의 사건, 철도경찰과의 충돌사건, 서북청년단과의 살육전 등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10)]

---

7) 군사편찬과, 위의 책, 388~394쪽.
8) 군사편찬과, 위의 책, 394~395쪽.
9) 『호남신문』 1948. 7. 22.
10) 군사편찬과, 앞의 책, 383~395쪽.

3)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와 숙군작업

해방 직후 좌익세력은 국군준비대를 창설하여 자신의 무장력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해산 명령에 따라 자신의 군사조직을 상실하게 되자 미군이 창설하는 국방경비대를 이용하고자 침투공작을 시작하였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남로당 중앙당은 도당·군당을 통해 조직적으로 좌익인사들, 특히 청년·학생들을 국방경비대에 침투시키는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로당은 군대침투공작을 위하여 중앙당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장교책과 사병책을 두었고 그 하부에 육군책과 해군책을 두어 공작을 분담케 하였다.

남로당의 군부에 대한 침투공작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장교들에 대한 침투는 첫째, 실력으로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되는 방법이었는데 육사 3, 4기의 좌익장교들 대부분은 사병 중에서 소속부대장의 추천으로 충당되었다. 둘째, 추천으로 입교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부·군·정계의 유력인사를 이용하여 추천을 받게 했다. 셋째, 당 수뇌가 군내 당조직에게 추천하여 사관학교에 입교,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넷째, 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는 세포를 이용하거나 혹은 그들을 매수하는 입교방법이 있었다. 다섯째, 기성장교의 신원과 인적 배경을 조사하여 접근의 소지나 잠재성분을 내재시키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기성장교들의 대인관계나 지연·혈연·인연·동기동창관계 등 한국의 토착적인 바탕을 이용하여 포섭공작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11]

사병들에 대한 침투공작수단은 마을에서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입대케 하는 방법, 좌익계 활동에서 노출된 자들을 리·면·군·도의 단위당을 거쳐 각 부대의 조직책에게 추천하여 침투시키는 방법, 경찰과 적대관계나 혹은 반감이 있는 자들을 입대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부대에서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장교나 하사관이 기성사병을 포섭하는 방법, 조직에 직접 가입시키지는 않더라도 접근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병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감화·동조케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그들은 우익계 사병의 군대 침입을 막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강요함으로써 계속 군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중에서 도망병이나 탈영자가 나올 경우 이의 보충을 좌익계로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12]

실질적으로 장교는 중앙당의 특수부에서 직접 공작책임을 맡게 하고, 사병은 도당의 군사부에서 공작을 위임받아 침투시키는 이원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장교의 포섭은 주로 중앙당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장교의 임관과 배치를 국방경비대의 중앙사령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며, 장교들의 근무지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고, 근무지도 자꾸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사병들은 도단위로 모병되어 향토연대에서 수용하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연대간의 이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역당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도당 군사부는 각 시·군당 군사부에 연락하고 시·군당 군사부는 면·리의 조직에 연락하여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여 그들의 명단을 시·군당을 거쳐 도당에 제공하였다. 도당 군사부에서는 이를 각 연대에 침투된 조직책에게 하달하여 입대케 했다.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침투는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946년 10월사태가 일어난 경북지역과 2·7구국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에서 공작이 가능하였다.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의 4연대와 여수의 14연대 사병 가운데 반수 이상은 남로당 전남도당에서 침투시키고 있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교와 사병에 대한 침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서도 장교와 사병들은 자신들 외에는 누가 남로당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조직은 여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반란을 일으킨 하사관과 사병들이 남로당에 연결되어 있던 다수의 장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했다.

미군정당국은 1948년 3월부터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공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

11) 김점곤 외, 『한국전쟁사』 제2권, 행림출판, 1990, 260쪽.

12) 김점곤 외, 위의 책, 261쪽.

남로당은 좌우연합모색, 미군철수주장 등 정치선전공세를 주로 하고 야산대·선행대 등 실력투쟁은 그 보조수단으로 하고 있는 정도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숙군작업을 신중히 준비하고 있었다.

14연대가 창설될 때도 기존 광주의 4연대에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정보기관에게 모종의 의심을 받는 하사관들과 사병들이 다수 끼어 있었다. 또한 14연대 병력 중에서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의 병력을 구성할 때도 14연대의 구성 대원들 중에서는 문제가 많은 하사관과 사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13] 14연대의 하사관그룹 중에서 지창수·정락현·최철기·김근배·김정길 등이 대표적으로 남로당과 연결된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서로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승만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동질적 인사들이었다.

장교그룹 중에서는 김지회·홍순석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들이었고, 그외 다수가 남로당 중앙당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하사관·사병그룹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14연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사관과 사병들에게 사살되기도 하였다. 14연대에 파견된 도당 조직원은 박태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연대 인사계에 지시하여 대대·중대·소대로 조직원들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연대 인사계에 대한 침투, 포섭공작이 가장 먼저 진행되었다.[14]

국방경비대의 좌익인사 사찰은 태릉에 있는 제1연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대장인 이성가 소령은 부대에 침투하고 있는 좌익인사를 색출하고자 경비사관 3기로 임관한 김창용 소위(관동군 헌병출신)를 발탁하여 정보주임 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15] 그리고 그에게 정보소대를 편성케 하여 부대의 사상사찰을 전담시켰다. 이 정보소대는 과거 경찰이나 헌병 출신의 특기자들을 채용하는 등 활동가들을 모아 우선 연대의 좌익인사들을 색출하는 일을 맡았다. 이 부대가 후에 특무대의 골간이 된다.

김창용은 제1연대의 선임대대장인 이병위 소령을 추적하였다. 그는 정보소대원을 개성·문산·포천·의정부·인천·수원 등지에 배치하고 거미줄을 쳤다. 그리하여 노재길·정국환이 부대 프락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아 관련자 8명을 검거하고 문산 다리 밑에 숨겨둔 무기를 압수하였다.[16]

그런데 배후인물인 이병위 소령은 1947년 3월 18일자로 초대 군기대장, 즉 지금의 헌병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병위 소령이 5월 21일 청주의 제7연대장으로 부임하자 정보대원들은 청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주에 부임해오는 이병위 소령을 체포하였다. 그리하여 이병위 등 좌익계 인사들은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어 5년형을 받았고, 1947년 10월 2일 파면되었으며 대원들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8월 15일 해방 2주년 기념행사에 제1연대가 시가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부대의 프락치들은 장병들이 낮에 행사에 참가하면 자연히 물을 마시게 되므로 사전에 연대 우물에 독약을 타면 이들이 그 물을 수통에 넣어가지고 갈 것을 예상하고 독살할 음모를 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김창용은 최희섭 일병 등을 극렬 좌익분자로 위장침투시켜 행사 3일 전에 일당을 검거함으로써 독살계획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이와 같이 1연대에서는 연대장의 신속한 조치로 좌익세력들을 숙청하고 있었으나 다른 부대에서는 정보과가 하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김창용 대위는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의 비서 겸 연락책임자인 김영식을 서울 삼청동에서 체포하였다. 그에게 압수한 비밀문서 속에서 군내부에 침투한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계 500여 명의 명단이 나왔다. 이 명단에는 좌익적 성향의 고급장교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었다. 당시 육사 생도대장 오일균 소령, 교수부장 조병건 소령, A 중대장 김학림 소령, 제4여단장 대리 김종석 중령, 제15연대장 최남근 중령, 오규범 소령, 최상빈 소령, 나학선 소령 등 군사영어학교 출신을 위시하여 100여 명이 조직상에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 세포책인 오일균 소령은 프락치를 육사에 입교시키는 공작을 하였고, 입교 후에는 생도

---

13)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83, 186쪽에 따르면 14연대 사병의 반수가 전남도당이 침투케 한 좌익계 사병이었다 한다.

14)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381쪽.

15) 군사편찬과, 「이성가 소장 증언」, 『창군전사』, 509쪽.

16) 『동아일보』 1974. 7. 11.

들을 포섭시키는 임무를 수행케 하거나 이를 조종하였다. 그는 1946년 9월부터 1년간 육사교관을 하면서 2기생, 3기생에 대한 포섭공작에 큰 역할을 한 경력이 있었다. 3기생 가운데 약 60여 명이 좌익으로 숙청된 것은 이를 증명하는 사실이다. 제4여단장 대리 김종석 중령은 최기덕 기자에게 반란음모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방을 감추고 있었다.[17]

군대의 좌익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김창용은 김영식의 체포와 좌익명단을 입수한 공로로 대위가 된 지 2개월 10일 만인 1948년 11월 5일 소령으로 특진하였다. 그는 이후 한국의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4·3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1948년 6월 18일 문상길 중위에게 살해되자 연대 내의 좌익인사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고, 그것의 여파는 여수 14연대에도 미치고 있었다. 연대장 오동기 소령은 여단 정보처에서 김지회 중위가 요시찰 인물이라는 비밀통보를 받고 당시 연대 작전주임 보좌관이었던 김지회를 대전차포 중대장으로 임명하여 57㎜대전차포의 교육을 위해서 여단에 파견하였다. 당시 14연대에는 대전차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송호성 준장과 정일권 참모부장에게 김지회를 구속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불충분한 증거로는 체포할 수 없다고 하자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과 정보주임 김래수 중위에게 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헌병대장 이갑수 대위를 서울까지 출장을 보내 김지회의 구속을 호소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오동기 연대장의 조치를 알게 된 김지회와 지창수 등의 좌익세력들은 자신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숙청과 구속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숙청은 더욱 본격화했다.

17) 군사편찬과, 앞의 책, 510쪽.